

오는 10월, 2012 미국 세계표준의 날 개최 예정

‘표준이 어떻게 효율을 높이는가’에 관심 증대

미국은 매년 표준과 식량성 평가분야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ANSI(미국표준협회)와 NSF(국립표준기술원)의 공동 주관 하에 세계표준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2012년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10월 11일, '세계표준의 날' 기념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편집자>



▲ 표준을 통해 자원소비와 쓰레기 배출을 줄임으로써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해진다



오늘날 세계는 지속 가능성과 자원
불안의 문제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 및 단체는 자원 소비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미국은 오는 10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예정인 '세계표준의 날' 기념 행사
주제로 '표준이 효율을 높인다'를 선정했다.

국제적으로 부합된 표준과 규정은 혁신과 효율, 무역증진,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에 기술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을 부여한다. 따라서 국제표준과 규정에 반영된
첨단기술 및 노하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인다. 동시에 비용을 줄이는 등 효율적인
제품 생산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미국의 세계표준의 날 프로그램에
세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효율 높이는 표준의 역할을 기념하는 행사로 구성

2012년 10월 11일, 세계표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은 워싱턴 DC에서 '2012
세계표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 행사에는 산하인 및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더 생산적이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표준의 역할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특히 이번 기념
행사에서는 '표준이 효율을 높인다'를 주제로 부합되는 전자, 서비스, 시스템과
환경의 효율제고에 표준, 규정 및 적합성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세계표준의 날 본 행사는 10월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페어폰트 워싱턴 호텔에서
리셉션 및 전시회로 시작된다. 이어 7시부터는 디너를 겸한 시상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 수상부성 장관을 역임한 고 로널드 브라운(Ronald H. Brown)을 기리며
표준발전에 공헌한 이에게 수여하는 'Ronald H. Brown 표준지도사 상'과
'세계표준의 날' 신문 경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한다.

세계표준의 날은 1970년 시작된 이래 명실상부한 국제적 행사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은 매년 표준과 적합성 평가분야의 대표단으로 구성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ANSI(미국표준협회)와 NIST(국립표준기술원)의 공동 주관 하에 세계표준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International Code Council이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미국의 세계표준의 날 기념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wsd-us.org에서 볼
수 있다. 또한 본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T&S**



▲ 오는 10월 1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ANSI와 NIST의 공동 주관 하에 세계표준의 날이 개최된다